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제가 파견된 대학은 times-slc라는 곳이었는데 수빅에 위치하고 있으며 클락공향에서는 차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p> <p>산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내에 나갈땐 FB나 택시를 10분정도 타고 이동했습니다.</p> <p>건물은 5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수업은 1-5층에서 듣고, 생활은 3층에서 했습니다.</p>
수업	<p>수업은 8시부터 5시까지 50분씩 8교시로 이루어져 있고, 4시간은 그룹수업, 4시간은 1대1수업이었습니다.</p> <p>그룹수업은 실력이 비슷한 5명이 그룹이 되어서 2시간은 토익스피킹, 1시간은 mmc(mv나 cf찍는 시간), 1시간은 face to face라는 듣기,문법,스피킹 등의 전체적인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p> <p>1대1수업은 저와 선생님 1대1로 수업을 하는 것이였고 4명의 선생님과 수업을 했습니다. 두시간은 단어 수업 , 두시간은 읽기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어와 읽기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프리토킹을 하기도 해서 1대1 수업때 스피킹과 듣기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p>
Activity	<p>도착하고 다음날에 수빅투어를 했는데, 우리가 매일 가게 될 시내와 수빅비치 소개를 해주셨고, 마트나 식당추천을 해주셔서 나중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된 액티비티였습니다.</p> <p>두 번째 액티비티는 시내투어였습니다. 클락에 있는 큰 sm몰에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p> <p>세 번째 액티비티는 요트투어였는데, 처음타보는 요트였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제일 기억에 남는 액티비티였습니다.</p> <p>네 번째 액티비티는 리조트투어였습니다. 화이트 코랄 비치 리조트에 가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습니다. 이날도 날씨가 좋고 리조트도 너무 이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액티비티입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한국이 겨울일때는 필리핀이 건기여서 비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날씨여서 생활하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안전	가드분들이 항상 문앞에서 지키기도 했고, 사전에 들었던 것처럼 위험한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기대를 많이 안해서 그런지 숙소에는 만족했습니다. 단지, 벌레가 많이 나오는게 유일한 단점이었습니다. 엄청 큰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비명소리가 많이 들리긴 했지만, 가드를 부르면 바로 뛰어와서 잡아주셔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던 점은 과자나 음식을 꼼꼼하게 치우지 않으면 개미가 엄청나게 꼬였습니다.
식사	학교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아침과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먹었는데, 한국식으로 다양한 음식들이 나왔고, 심지어 맛도 있어서 만족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교통	시내까지 차로 10-15분 정도 걸렸는데 FB나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74만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 보험	3만원	
사용할 돈 카드	45만원 15만원	출국전 환전
합계	약 130 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생필품은 거기서 다 준비할 수 있어서 조금만 준비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옷은 정말 살 만한 것이 없어서 옷을 많이 준비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45만원으로는 생활하는데에 너무 부족했어서 더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드 사용도 가능하고, atm기기에서 돈을 뺐을 수 있어서 카드를 들고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한국에서 필리핀 후유증에 우울증에 걸릴 지경으로 힘들었을 만큼 필리핀 어학연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 진작 안갔나 싶을 정도로 꿈을 꾸었던 것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학연수를 가기 전, 단순히 외국인공포증을 없애고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오자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영어실력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너무나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4주라는 시간이 영어를 배우기에도, 많은 선생님들, 친구들과도 깊게 친해지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친구들과 친해졌다가 바로 헤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4주가 너무 짧아서 진도를 나가는 것도 너무나도 벅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숙소에서 보이는 풍경	Fun Friday



리조트에서 점심식사



리조트 풍경



수빅비치에서



필리핀 풍경